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미 관세 세미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 NYT : 연준 이사 Waller, “계속되는 이란 전쟁, 금리 인하 신중해야”
- Bloomberg: 연방재무장관 “파월 의장, 이사로 남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

[미국 금융]

- Bloomberg: 달러 지배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

[오일]

- YahooFinance: 휘발유가 갤런당 \$3.91로 크게 올라
- YahooFinance: IEA, “이란 전쟁,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위기”
- WSJ: IEA, 오일 절약 위해 재택 근무, 카풀 등 권유

[글로벌 경제]

- WSJ: WTO, “중동 위기 계속되면 글로벌 무역/성장 하향 조정

[경제 보고서]

- 한국은행(BOK) 뉴욕사무소: 최근 미국 경제 상황과 평가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NYT: Fed Official Urges Caution on Rate Cuts as Iran War Drags On
연준 이사 Waller, “계속되는 이란 전쟁, 금리 인하 신중해야”

- 연준 이사 Christopher J. Waller는 계속되는 중동 위기로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그는 노동 시장이 계속 둔화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당초 트럼프의 관세 여파가 줄어들면서 올해 인플레이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전에 전망했지만 오늘 금요일 그는 “중동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때문에 인플레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중동 위기는 현재 3주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 국제 벤치 마크인 브렌트 유가 107달러를 기록해 이달 초보다 50%나 상승했다.

기사

Bloomberg: Powell Staying at Fed Goes Against Historic Norms, Bessent Says

연방재무장관 “파월 의장, 이사로 남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

- 연방재무장관 Scott Bessent은 연준 파월 의장의 의장직이 5월에 끝난 뒤에도 연준에 남는 것은 역사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 그는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전직 의장이 이사로 남은 사례는 역사상 단 한 번뿐이었고,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연준에 남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 한편 의장은 이번 주 수요일 기자들에게, 연방 법무부의 연준 건물 리모델링 조사 결과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의 연준 의장 임기는 5월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he Era of Dollar Dominance Is Coming to a Close 달러 지배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달러에 대한 신뢰를 줄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중동 지역과의 무너진 안보 체제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
- 물론, 달러는 여전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달러가 전 세계 외환거래 보유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과거에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저축한 자금을 꾸준히 미국 국채 시장에 투자했다. 이들의 외화보유액이 정점에서 약 5조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의 차입 비용을 약 0.5%포인트 낮췄고, 그 결과 납세자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이제는 중국은 이미 달러 매입을 중단했다. 앞으로는 오히려 달러를 매도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미국 금리는 서서히 상승할 것이다.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는 유가 하락과 과도한 지출로 인해 흑자가 줄어들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감소할 것이다. 또한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지면, 미국 정부가 이를 경제적 수단(제재 등)으로 활용하는 힘도 줄어들게 된다.
- 걸프 지역은 이제 더 이상 달러를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달러 보유액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사

[오일]

YahooFinance: Gasoline prices hit highest level since 2022 as oil tops \$100

휘발유가 갤런당 \$3.91로 크게 올라

- 중동 위기로 인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오늘 금요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거의 4달러에서 판매되고 있다.
- 관련 AAA 데이터에 따르면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91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 휘발유 가격은 지난 몇 주간 계속 인상되고 있으며 한 달 전에 비교하여 \$0.98 상승했다.
- 휘발유 가격은 수일내에 갤런당 4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일 가격도 이란 전쟁 이래 40%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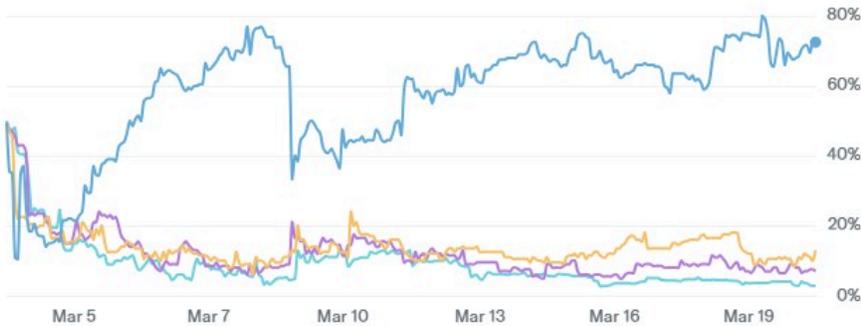


Powered by Polymarket

What will Crude Oil (CL) settle at in March?

\$595,893 Volume Ends on Mar 31, 2026

\$90+ 73% \$85-\$90 9% \$80-\$85 7% \$75-\$80 4%



View more on Polymarket

기사

YahooFinance: Iran war is the greatest threat to global energy 'in history', warns IEA

IEA, "이란 전쟁,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위기"

- 국제에너지기구(IEA) 책임자인 Fatih Birol은 이란 전쟁이 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충격을 초래했으며, "걸프 지역의 석유·가스 공급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 그는 FT 인터뷰에서 이번 분쟁을 "역사상 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 그는 또한 이번 전쟁으로 차단된 가스 물량이 2022년 유럽이 러시아에서 손실을 입은 규모의 두 배에 달하고, "석유 감소 폭도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다.

기사

WSJ: Work From Home, Carpool and Fly Less to Combat Soaring Oil Prices, IEA Says

IEA, 오일 절약 위해 재택 근무, 카풀 등 권유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연료 수요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카풀, 비행기 탑승 자제 등 절약 조치를 가계·기업·정부에 권고했다.
-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전면 봉쇄되면서 연료 가격이 급등했고, 공급 차질 규모도 1973년 오일쇼크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 이에 따라 IEA 회원국들은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공급 조치다.

기사

[글로벌 경제]

WSJ: WTO Sees Trade and Growth Slowing More Sharply if Middle East Conflict Persists

WTO, “중동 위기 계속되면 글로벌 무역/성장 하향 조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과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WTO는 올해 상품 무역 성장률을 연중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될 우 기존 1.9%에서 1.4%로 낮췄다.
- 만약 전쟁이 2026년 내내 이어진다면, WTO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2.8%에서 2.5%로 낮게 예상하고 있다.
- 한편 2025년 세계 무역 성장의 42%는 AI 관련 제품이 차지해, 분쟁의 충격을 다소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경제 보고서]

한국은행(BOK) 뉴욕사무소:최근 미국 경제 상황과 평가

- 첨부 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첨부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5,846.20	-175.9	-0.38%	
US 500	6,550.90	-55.6	-0.84%	
Dow Jones	45,876.84	-144.59	-0.31%	
S&P 500	6,550.92	-55.56	-0.84%	
Nasdaq	21,799.58	-291.11	-1.32%	
S&P 500 VIX	25.47	+1.41	+5.86%	
Dollar Index	99.332	+0.274	+0.28%	

미국 USD
1,506.50
▲15.50 +1.04%
03.20. =

유럽 EUR
1,740.76
▲13.66 +0.79%
03.20. =

일본 JPY
945.85
▲0.89 +0.09%
03.20. =

중국 CNY
218.18
▲1.41 +0.65%
03.20. =

유로/달러
1.1588
▲0.0140 +1.22%
03.19.

영국 파운드/달러
1.3429
▲0.0174 +1.31%
03.19.

환전고시환율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
	1 1 달러
=	
 대한민국 KRW	▼
	1,506.50 1,506.50 원